

제주 어선 화재 한달에 한건꼴 발생

2019년부터 올 현재 44건... 해상 25건·항포구 19건 정박 공간 한계에 어선은 커지고 재질도 화재 취약 어선 밀집 정박이 화 키워... 소방, 항포구 긴급점검

최근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에서는 매년 10건이 넘는 어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선 화재는 2019년 14건, 2020년 12건, 2021년 11건 등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7건의 어선 화재가 발생

한 상황이다. 이 기간 어선 화재를 장소별로 보면 항·포구 19건, 해상 25건이다.

어선 화재 중 특히 항·포구 정박 중 발생하는 화재는 밀집 정박 특성상 피해가 더 크게 난다. 올해 성산·한림항 사건 외에도 지난 2007년 9월 11일 성산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13척이 전소돼 8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2010

년에도 서귀포항 부두에서 화재로 어선 9척이 전소, 5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이다.

문제는 밀집 정박 양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선 규모는 커지는 데 어선이 정박할 항구 공간은 그대로인 상황이라, 어선들이 밀집해 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 어선 1척당 평균 t수는 2000년 8.63t에서 지난 2020년 17.75t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어선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점도 화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FRP는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유독성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FRP 재질로 건조된 선박은 제주도내 어선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항·포구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 오영훈 지사가 “도내 전 선박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특별요청사항 1호를 발령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폭염·고수온’에 양식장 긴장

해수부, 지난 8일 제주지역 고수온 주의보 발령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장 피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대량 폐사 방지를 위한 집중 관리를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 사업은 고수온 대응 취약 양식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와 지하해수를 함께 쓰고 있는 동부지역과 달리 지하해수를 주로 사용하는 한경면 등 서부지역 양식장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취약지에 대한 고수온기 현장 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수온 양식생물 피해 사례를 보면 2021년 한경면 3개소 4만1762마리 폐사에 따른 피해액 약 2억7000만원, 2020년 한경면 5개소 4만2260마리 폐사에 따른 피해액 약 2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고수온 대응 어류 면역증강제 지원 등 피해 저감 물품을 20개소(총 6700만원)에 보급해왔다. 또한 노후 양식시설 3개소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지하해수펌프, 양식장 차광막

교체 등을 지원했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현장 대응반은 양식장 사육 수온 모니터링 등 예찰 활동 강화, 지속적인 현장 순회 지도와 밀착 관리를 맡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전남 함평만 등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를 고수온 경보로 상황하고, 제주도도 서해 연안까지 고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다. 전남 함평만 등의 수온이 25.1~29.5℃를 유지하고 있고, 제주와 서해 연안의 수온이 24.0~27.6℃로 형성됨과 동시에 추가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고수온 경보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발령했다. 특히 발령 이외의 해역도 수온이 23.5~25.7℃로 평년치 비해 1℃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 측은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심한 양식어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를 당부했다. 전선희기자

한림항 어선화재 실종자 수색 난항

해경 “본격적인 어선 인양도 11일부터 시작”

제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의 원인 규명과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7일 오후 4시43분쯤 해경 구조대와 특공대 등이 1차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5시 26분에 2차 수중수색을 진행했지만, 불길로 선박 입구가 녹아내리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근 해상에 대한 수색도 진행됐지만 특이점은 없었다.

화재 원인 규명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폭발음이 들리긴 했지만 유증기인지, 합선인지, 누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은 당시 기관실에서 배선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병원으로 옮겨진 선장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 가능성은 낮다. 향후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

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겠다”며 “선체 인양은 제주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8일 오전 인양 업체가 현장에 도착했다. 인양을 위한 특수 장비는 당장 공수하기 어렵다. 본격적인 인양은 11일쯤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오전 10시17분쯤 제주시 한림항 내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A호(29t)에서 평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A호에는 출항을 준비하던 선원 5명(한국인 3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있었는데, 바다로 뛰어든 3명(한국인 2명·인도네시아인 1명)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인도네시아 선원 1명과 A호의 한국인 기관사 1명은 실종 상태다.

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 옆에 세워진 같은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B호(49t·항구에서 첫 번째 정박)와 C호(39t·항구에서 세 번째 정박)에 옮겨 붙었고, 세 척 모두 전소됐다.

현재 소방에서 추산한 피해액은 약 10억8400만원이다. 송은범기자



마른장마에 거북등 된 참깨밭 장마기간에도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일 제주시 한경면 고신리 한 참깨밭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다. 강희민기자

경찰 빠른 판단이 40대 엄마 살렸다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물에 빠진 40대 여성이 목숨을 건졌다.

지난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5분쯤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서귀포 경찰서 중동지구대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중동지구대는 즉시 요구조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천치연 부근에 있는 것을 확인, 오후 11시9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수색을 벌인 경찰은 5분뒤

인 오후 11시14분쯤 서귀포시 서흥동 칠십리아외공원 앞 바다에서 등을 보이고 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임을 판단한 박승현 중동지구대 경장은 지체 없이 바다로 입수, A씨의 몸을 뒤집어 기도를 확보한 뒤 구조했다. 이후 A씨는 의식을 되찾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경찰청은 박 경장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물놀이하던 2명 구사일생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6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서쪽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난 구조대와 구급대가 현장 도착했을 때 A(62)씨와 B(49)씨는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구조된 상태로 A씨는 맥박이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B씨는 의식이 양호한 상태였다. 김도영기자

저녁반 국비지원 초보자 가능
컴퓨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과정
초보자도 자격증 취득 가능

대상 재직자, 구직자(취업목적), 영세사업자, 학생(휴학생)등 거의 대부분

과정명 문서작성 실무자 양성 (ITQ한글엑셀파워포인트 취득)과정

기간 2022.07.20 ~ 10.12 (조기마감 가능)

일정 월~목 (주4회)

시간 저녁 7시 ~ 9시 50분

자비 386,680 (근로장려금 수급자 212,680)

준비 내일배움카드 및 일반인 (전체금액 납부)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바랍니다. (064-749-3434)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w.com (제주시 연동 283-26, 3층)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LG인텔리뷰 청각보청기 부문 대상 수상

충진형 귓속형보청기 / 충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사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職 員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누리 미등기토지연구소
표지전문

토지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신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 드립니다.

업무안내

01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 드립니다.
02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03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 드립니다.

[시행 2020. 8.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격시행
2022년 1월 4일부터 기존등지역 모지도 포함시행!
미등기부동산 자금이 기회입니다!

올해 8월4일까지가 조치법 기간

상문의 제주토박이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14